2월 26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2월 26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금융불안-지표악재’ 뉴욕 하락..다우 1%↓ [다우: 7,270.89 (-1.09%)</p>	<p>25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마감. 주요 지수는 일제히 1% 넘게 떨어짐. 경기후퇴(recession)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테스트의 가이드라인이 민간 자본 유치 등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는 분석이 지수 하락의 배경. 이날 발표된 1월 기존주택판매는 예상 밖의 감소세를 나타내며 12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짐.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의 우크라이나 신용등급 강등 소식도 동유럽발 금융불안을 되새기며 악재로 작용.</p>
<p>‘美은행, 자본확충 시한 6개월’..테스트 가이드라인 발표</p>	<p>미국 재무부는 주요 은행들에 대한 자산 건전성 평가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작하고, 구체적인 진행 계획을 밝힘. 재무부는 자산규모 1,000억 달러 이상의 19개 주요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 테스트 결과 자본 확충이 필요한 은행들은 6개월 이내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거나 재무부로부터 공적 자금을 지원받게 됨. 의무 전환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시한이 ‘7년후’로 잡아짐에 따라 시장의 초미 관심사였던 ‘당장 국유화’는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 그러나 전날 버냉키 의장이 밝힌 대로 부실이 심화될 경우 보통주 전환 시기는 당겨질 수 있음.</p>
<p>美 1월 기존주택판매 5.3%↓ ‘12년 최저’</p>	<p>미국의 1월 기존주택판매는 예상 밖의 감소세를 나타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후퇴가 심화되면서 주택경기의 침체도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1월 기존주택판매(계절조정)가 전월대비 5.3% 감소한 연율 449만채를 기록했다고 밝힘. 이는 지난 1997년 이후 12년만에 최저치이며, 마켓워치와 블룸버그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연율 480만채, 479만채도 하회한 수준. 주택가격(중간값)은 17만300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4.8% 하락하여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 1월 주택재고는 연율 360만채로 2.7% 줄어들어듬.</p>
<p>유가 6.4%↑...‘수요 증가-재고 감소’ [WTI: \$42.50 (+\$2.54)</p>	<p>국제 유가가 수요가 늘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 이날 유가는 장초반 미국의 기존주택판매가 예상 밖의 감소세를 나타내며 1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소식에 경기후퇴(recession) 심화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로 하락했으나 에너지부의 원유 재고 발표 이후 상승 반전. 지난 4주간 미국의 휘발유 소비가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함에 따라 지난주(20일 마감) 휘발유 재고는 전주대비 340만 배럴 감소. 원유 재고도 전망보다 적은 70만 배럴의 증가세를 나타냄. 난방유를 포함한 정제유 재고는 80만 배럴 증가.</p>

제목	주요 내용
英 경제, 1980년 이후 최악 수준	영국이 1980년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남. 25일 영국 국가통계국은 4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5% 감소했다고 밝힘. 연간 기준으로는 1.9% 감소한 것. 이는 당초 블룸버그통신이 조사한 전문가들의 예상치 1.6%보다도 악화된 것이며, 전망치 평균인 1.8%보다도 하락한 것. 특히 소비 지출은 0.7% 감소했는데 이는 1991년 이래 최악의 수준.
中 비철금속·물류 지원 방안 내놔...10대 산업진흥책 마무리	중국이 10대 산업진흥책 발표를 마무리함. 당초 마지막 지원산업 후보로 부동산·의료·에너지 등이 거론됐으나 물류산업이 최종 선택됨. 국무원은 10대 산업진흥책을 발표하며 각 지원산업의 기술혁신을 강조했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가 총 1,000억 위안(약 22조원)을 책정해 2년간 혁신상품 개발을 지원하기로 함. 중국 국무원은 비철금속과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25일 발표.
엔 약세 지속..."안전자산' 지위상실"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엔화 가치가 주요 통화대비 약세를 이어감. 25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오후 4시23분 현재 엔/달러 환율은 0.95엔(0.98%) 상승(엔화 가치 하락)한 97.60달러에 거래되어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 엔화는 전날에도 달러대비 2%이상 급락.
2월 업황BSI 외환위기 이후 최저	이번 달 업황BSI가 지난 달에 비해 4p 떨어진 43을 나타내 지난 98년 1분기의 35 이후 최저를 기록. 다음 달을 전망하는 3월 업황 전망 BSI도 계절적인 요인을 제거했을 경우 지난 달보다 3p 떨어진 48로 나타났음. 이 달 업황 BSI의 경우 수출 기업은 1p 소폭 상승에 그쳤고, 대기업 -2p, 중소기업 -5p, 내수기업 -7p로, 내수기업이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음.
근로자 실질임금 6.5% 하락..IMF 이후 최대폭	노동부는 지난해 4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월 평균임금을 조사한 결과 전년도 4분기보다 2.1% 하락한 266만1,000원으로 조사됐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으로 환산하면 1년 동안 6.4%가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음. 고용형태별로는 상용근로자 실질임금의 경우 256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9% 하락하는 데 그쳤으나 임시·일용노동자는 75만4,000원으로 무려 12.9%나 하락.
조선업체 신규 수주 올스톱	업계에 따르면 불황에도 굳건히 버텨왔던 국내 대형 조선소에도 발주 취소와 선박 인도 연기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런 가운데 정부가 `선조정-후지원`이라는 해운 구조조정 원칙을 뒤늦게 발표하면서 조선과 해운의 연쇄 몰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